

# 성도의 빛 11

1971

레이맨인 청소년 대회에 참석자

레이맨인과 교회.....3

왕가의 혈통.....5

## 영감의 메시지

알빈 아아르 다이어  
십이사도 보조



● 저는 온유함과 겸손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온유함은 스스로 겸손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다음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의 차이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겸손할 수 밖에 없었음이 축복이라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가 더 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스스로 진정 겸손해지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참으로 이들은 몹시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진 자들보다 더 복되리로다.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참으로 믿기 전에 피할 수 없어 말씀을 알게 되거나, 강압으로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침례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엘마서 32 : 14~16)

선교사가 전하는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진실로 영감을 받아 개종한 사람들은 더욱 더 성실한 말일성도가 될 것입니다. ○

제 7 권 제 11 호

순 서

1971년 11월호

■대관장 메시지 : 나의 사랑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죠셉 필딩 스미스 .....	1
레이맨인과 교회 엠 달라스 버넷 .....	3
왕가의 혈통 스펜서 더블류 킴볼 .....	5
잠에서 깨어나는 과테말라 바바라 티에트엔 제이콥스 .....	11
■어린이 차지 : .....	15
참다운 나바호족 쉐리 존슨 .....	16
질 의 응답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로웰 엘 베니온 .....	19
신전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	21
변화 있는 생활 에드윈 오우 해롤드슨 .....	24
오늘 밤에는 안 오겠지 마가렛 브롬리 .....	26
형벌을 받지 않도록 생활하라 리차드 엘 이반스 .....	29
제시 이반스 스미스 .....	30
■선교부장 메시지 : 부라운 .....	31
■내외 소식 .....	32

# 성도의 빛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11월 1일  
통권 제76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이 달의 성도의 빛 표지는 교회의 광범위한 레이맨인 프로그램에 참석한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엘돈 린쇼턴 형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는 교회와 전 세계의 레이맨인에 관한 두 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이달의 메시지는 교회의 젊은이에게 관한 내용이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읽을 수 있는 훌륭한 내용입니다.

# 나의 사랑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 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의 개인적인 경험을 회상해 보는 것이 훌륭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험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지만 현재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일이나 유혹과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우리 집에는 주나라는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영민한 동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그 능력이 거의 인간의 것에 미칠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굿간에다 놓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말은 언제나 문에 묶어 둔 줄을 풀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의 끈을 마굿간의 반쪽짜리 창문에 연결된 기둥 꼭대기에 묶어 놓는데 이 말은 코와 이빨을 이용해서 쉽게 줄을 풀고 마당으로 나

가가 일수였습니다.

마당에는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마련해 놓은 수도가 있었습니다. 주니는 이 수도 꼭지를 자기 이빨로 틀어서 물이 계속 흐르게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말을 마굿간에 가두어 놓지 않는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말은 결코 도망을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저 수도 꼭지를 틀어 놓고는 마당 주위와 잔디나 정원을 맴돌며 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나는 물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를 잠그고 는 말을 다시 마굿간에다 가두어 넣고 문을 잠그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말이 나보다도 더 영리하다고 하신 적이 있었읍니다. 어느날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꼭 가두어 놓아 다시는 줄을 풀고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기둥 꼭대기에서 축 늘어져 있는 끈을 잡아 기둥 주위에 감고 다시 가로대에 칭칭 감아 놓으시고는 “이 늙아 이제 도망을 갈테면 가 보아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마굿간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기 시

작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니는 우리 옆에서 있었읍니다. 그 말은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가 수도물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이 우리 둘보다도 더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니를 마굿간 안에 가두어 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니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주니를 팔려고 하시지는 않았으니 이는 주니가 이러한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에 못지 않게 많은 훌륭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니는 마굿간에서 나와 마차를 끌고 다닐 만큼 믿음직스러웠읍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면허를 가진 산파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밤중에 어머니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일어나서 등을 들고 마굿간에 가서 주니를 마차에 매달았습니다.

그당시 내 나이는 겨우 열 살 정도였습니다. 주니는 유순했고 일기가 나쁠 때에도 나와 어머니를 산골짜기 어느 곳에도 데려다 줄 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은 왜 대부분의 아기들은 밤에 태어나며 그것도 한 겨울에 태어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나는 마차에서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는데 이때 늙은 주니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되었습니다. 주니와 함께 겪은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서 매우 훌륭한 것이었는데 이는 내가 어린 시절에 주니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니는 한 두가지의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나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자체를 감사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나, 교사나, 와드나 스테이크의 지도자나, 친구나 형제, 자매를 평가할 때 이러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즉 한 두가지의 결점을 극복하도록 돕는 가운데 장점을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후에 나는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고 즐기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항상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형 데이비드와 함께 송구를 즐겼습니다. 어느날 나는 숨이 차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송구장을 나왔습니다. 비회원 친구인 프루머 박사가 탈의장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셉 형제여, 만일 이 운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며칠 내로 아무게처럼 마루 바닥에 쓰러질 것 같군요.”

나에게는 좀 과도한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나는 조금씩 공놀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 보면 나는

오래히 데저렛 체육관을 쳐다보게 되고 뛰어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 후에 푸르머 박사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조셉 형제님 아직도 공놀이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운동을 중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매우 기쁘듯이 보였으나 나의 팀의 동료들은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는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형제님이 빠지면 우리네 명의 팀이 해체되어야 하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미안합니다만 저는 운동을 중지해야 합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운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운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것이 내 나이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개종자들이 침례받기 전에 몇년 동안 즐겨오고 익숙해 온 어떤 활동이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경전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며 영원한 복리와 진보를 위해서 어떤 습관을 변경해야 하느냐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예언자 중의 한 분인 이사야는 우리의 시대를 예견해 보았으며 이 말일에 나타날 상태를 예언했습니다. 현재 이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사무실로 갈 때나 그곳에서 나와서 걸으면서 나는 많은 시온의 딸들인 젊고, 나이든 자매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대와 유행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내가 젊었을 때 스포트 페이크 스테이크 아카데미나 후에 말일성도 대학에 다닐 때를 회상하게 해줍니다.

그당시 소녀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옷을 입어 긴 스커터트가 발목까지 덮었습니다. 나는 한 구름의 젊은 소년 소녀들이 시티 크리크 계곡으로 소풍을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등산을 하는 도중에 한 소녀가 미끌어져서 옷이 나무가지에 걸려 그녀는 종아리를 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당황해서 그들과 함께 계속 갈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설득시켜 겨우 그 일을 잊고 소풍을 계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 오늘날은 무릎을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내놓는 옷을 입는 소녀가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느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손과 예의의 원칙은 그 당시와 오늘날과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 의해서 발표된 표준은 남녀가 모두 정숙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합당한 품행과 겸양을 배워왔습니다.

내 생각으로 시온의 딸들이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말은 자매는 물론 형제에도 관계되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순결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은 남녀 모두 순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성약과 계명에 순종하여 겸양과 순결을 지킬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내 생애에

서 겪은 이러한 사소한 일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완전해 지도록 발전해 가는데 필요하고 유용한 주님의 지혜와 진리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행한 것같이 이곳에서 행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사악함을 물리치고, 불완전함 가운데서 일어서서 지상에서 주님의 성도와 종이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남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항상 나의 결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공놀이를 포기해야 했을 때,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습관을 극복하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쥬니의 나쁜 버릇이 그의 가치를 손상시켰듯이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단정치 못한 복장을 하는 것은 교회의 젊은이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도록 지상 생활을 이끌어 주는 영원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을 물려 받은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를 계승한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 완전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몰랐다면 나는 여기에 서기를 원치도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에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온갖 정성을 다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인디안 세미나리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종교 강좌를 베풀어 주고 있다.

## 레이맨인과 교회

엠 달라스 버넷

● 1947년 늦가을 유타주 리치필드가 근처의 사탕수수 밭은 일찍 내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 관에서 일했던 거의 모든 인디안들이 계곡을 떠났습니다. 언 땅을 파내서 사탕수수를 꺼내려고 남은 얼마 안되는 사람 가운데는 열 여섯 살된 헬렌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탕수수 파내는 것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받기 어려운 교육을 이곳에서 받기 위해 머물렀던 것입니다.

헬렌은 리치필드 가의 사람에게 그들의 뒷뜰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 가족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직후에 부탁되었는데 마침 이 대회에서 골든 부카난 형제\*가 인디안의 생활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은 결국 십이사도 정원회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가 리치필드 가를 방문하여 조

\* 골든 부카난, 1948년 : 교회 내의 인디안 담당 협의 책임자, 1951년 : 서남 인디안 선교부를 관리함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대부분은 레이맨인 자신들이다.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은 그들의 학교 교육을 위해 양부모에게 가기 전에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언을 하므로써 헬렌은 부카난씨 가정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다음 해 가을 아홉 명의 인디안 젊은이들이 말일성도의 가정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학기 동안 오천 명 이상의 레이맨인 학생과 접촉을 가진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레이맨인과 그들의 예언적인 운영에 대해 새로운 각성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미국에서 인디안이라고 알려진 백성과 태평양 군도의 주민들에 대해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백성들은 양쪽 가문의 잔류민이며, 리하이의 후손이며(니삼 21:2 참조) 예루살렘을 떠나 기원전 육세기 경에 미대륙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백성의 의해서 받아들인 제시의 기록인 물문경은 레이맨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인 약속은 요셉 스미스에게 알려졌으며 그는 이를 번역하고 1830년에 물문경을 출판하여 교회의 초창기부터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은 레이맨인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요셉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초기 개종 사업 때부터, 그리고 성도들이 유타 주에 정착할 때에 행한 브리검영의 눈부신 사회화 과정과 인디안

소녀가 리치필드 가에서 받아들여진 모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신학적으로 인디안의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일련의 계획이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일로 오늘날 교회는 이들에게 세속적이며 종교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해 주며, 이 위대한 백성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촉매의 역할도 아울러 하며,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각 인디안 학생들에게 흔히 물의를 일으키듯이 자신을 백인시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 보다 좋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교회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젊은이들은 백인들 사이에 존재해 온 편견의 장벽을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연안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학교는 교회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말일성도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레이맨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자력으로 지도력과 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에게 보다 폭넓은 잠재력을 가져다 주며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레이맨인 회원 가운데에서 보다 명확히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의 비 레이맨인 가운데 있는 간섭과 편견의 자취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 왕가의 혈통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직무 대리

본 기사는 1971년 4월 24일 쏘트 레이크시에서 있었던 레이맨인 청소년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나바호 부족 회의의 의장인 피터 맥도날드는 이 대회에서 연설한 연사의 한 분입니다. 이 기사 첫머리의 내용은 그에 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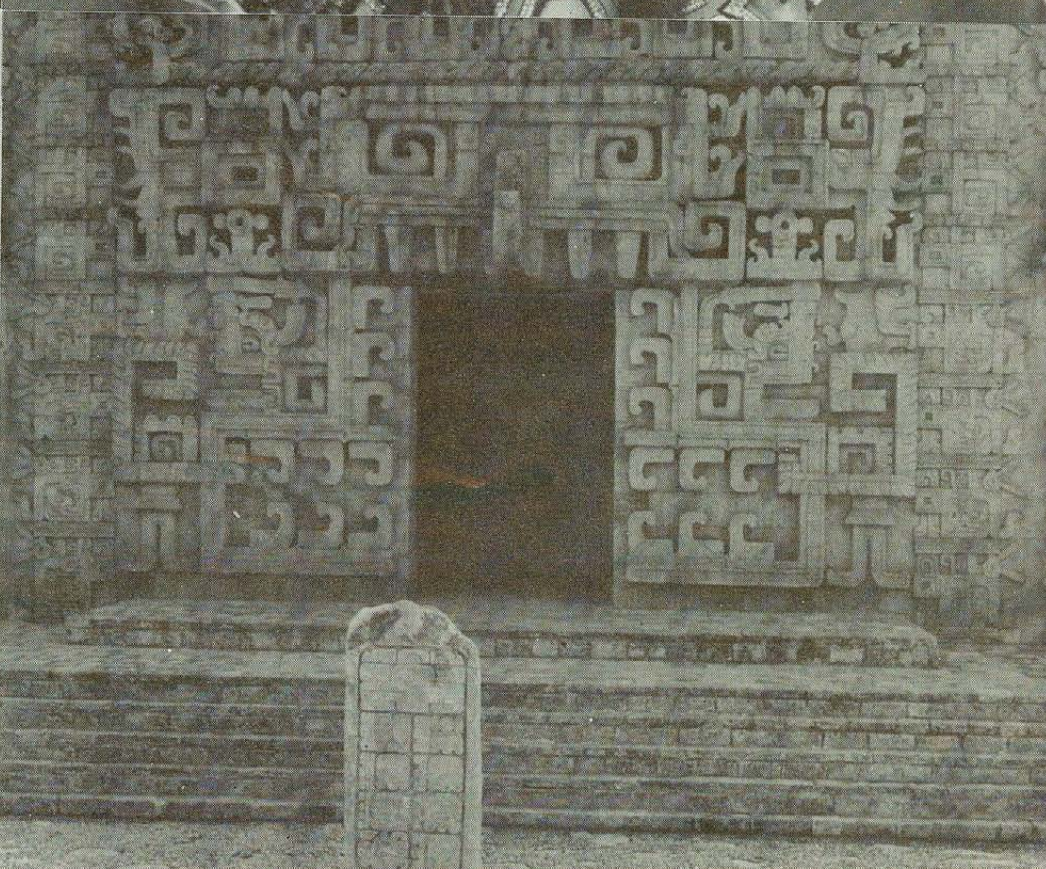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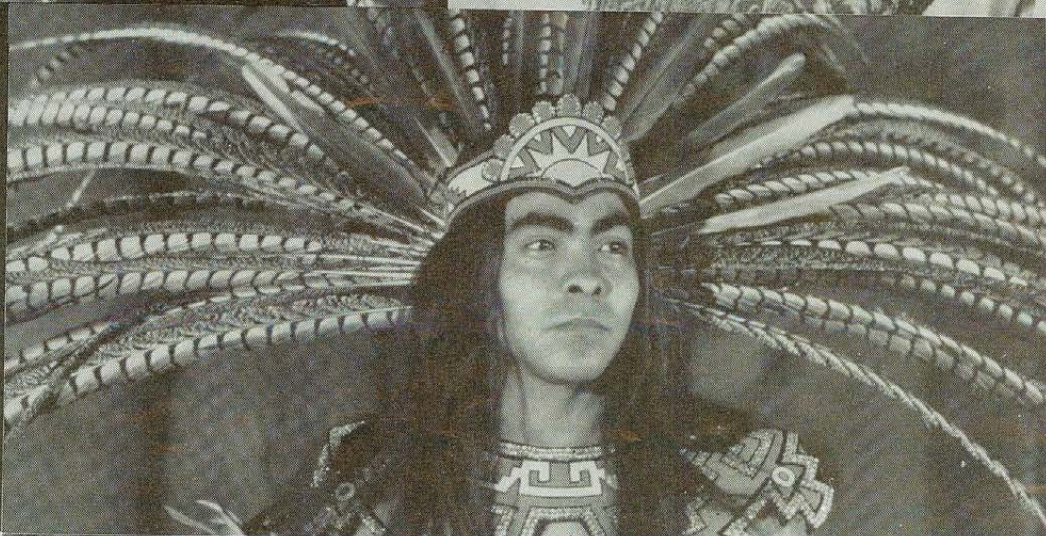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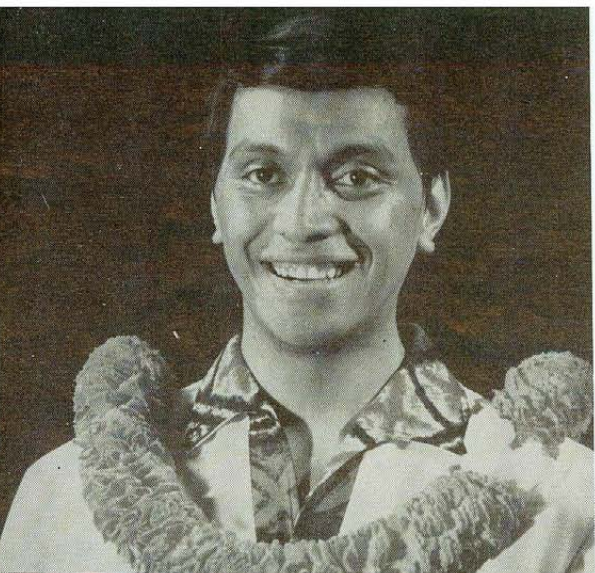
● 맥도날드 씨가 자신은 레이맨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몰랐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많은 레이맨인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인디안이나 인디안과 다른 종족의 혼혈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몇 인디안 부족에 양자로 되어 인디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레이맨인은 기원전 육백년 경에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험란한 깊은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에 온 리하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북부, 남부, 중앙 아메리카와 그의 섬에 산재해 사는 모든 인디안과 메스티조 부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들의 중세 역사를 보면 그들이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섬으로 떠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경을 세상에 내 놓은 요셉 스미스가 제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주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으나 이제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레이맨인의 수는 약 육천만에 달합니다. 그들은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포인트 바로우까지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남부 하와이 제도에서부터 남부 뉴우지일랜드까지 퍼져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계시와 언덕 위에 감추어져 있던 금판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인 위대한 물문경 때문에 모든 레이맨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번역은 기원전 육백년 경부터 주후 사백년까지의 역사 즉 근 일천년간 미대륙을 지배해 오던 위대한 백성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일천 사백여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고유하게 발전한 문명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백성의 후예를 1492년 컬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레이맨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디안과 그의 혼혈 종족 즉 폴리네시아인, 파테말라인, 페루인, 수우인, 아파치 종족, 모호코인, 나바호 종족 및 그의 인디안 종족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백성의 전 구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인디안 백성과 모든 레이맨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1845년 초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의 아들 딸들은 인디안 자녀의 교육에 봉사하도록 자기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그들도 복음은 물론 전전한 시민 생활의 모든 양식을 배우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옷을 입고 배불리 음식을 먹으며 마치 이스라엘과 요셉의 왕가의 모든 아들 딸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그들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며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유덕과 겸손과 관습…… 복장, 음악 및 그의 다른 모든 원칙과 의식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팔리 파카 프렛의 작품, 파카 프렛 로빈슨 편저, 쏘트 레이크시 1952년, 5페이지)

이러한 것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약 일천 오백년 전에 예언자 몰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은 나의 형제들로 인함이라.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며……”(몰말 1:8) 그 당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는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고 커다란 축복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수세기 전 레이맨인의 예언자를 포함한 그들의 고대 예언자들은 그들의 자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후손의 구원을 위해 밤낮 기도를 했습니다. 레이맨인을 위한 예언자와 기록가들의 끊임 없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820년 지상에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언자는 항상 그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로니이는 이 대륙에 살았다가 모두 죽은 니파이 백성의 최후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언덕 위에 그가 기록을 감추기 전에 썼던 말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장차 나의 동포인 레이맨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기록하는 것이다.”(모로 1:4)

현대의 계시에서 우리는 레이맨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 기록의 나머지 부분의 모두는 나의 거룩한 예언자와 또한 나의 제자들이 이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기도로 열망하던 나의 복음의 모든 부분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10:46) 아마 이 말은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았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번역될 몰몬경의 일부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깊게 느낀 점은 그들의 예언자와 우리의 예언자가 모두 레이맨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이 타락한 백성이 반기에 합당한 모든 훌륭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백년 전 교회가 조직된 후 예언자들은 세상에 몰몬의 수가 극히 적었던 때인 겨우 열 두 명 뿐이었을 때나, 백명, 천명이었을 때에도 레이맨인에 대해 가장 관심을 기울였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몰몬의 수가 수천명 뿐이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미 인디안과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자신도 강을 건

너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인디안 족장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계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야콥이 광야에서 번성하며 레이맨인이 장미처럼 피어 나리라. 시온은 산 위에 번영하며 높은 산위에서 기뻐하리니, 내가 지정한 곳애가 모이리라.”(교성 49:24~25)

이러한 모든 약속과 함께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특별히 과거 이십년간, 이룩한 사업의 결과로 위대하고 놀랄만한 현재의 상태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 많은 레이맨인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가의 예를 보면 섬 주민의 이십 퍼센트가 교회에 속하고 있으며 이곳에 세 개의 큰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 두 개의 스테이크는 완전히 레이맨인의 손으로 관장되며 다른 하나도 거의 그들의 손으로 관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모아에도 세 개의 스테이크가 있으며 소 사모아 군도에도 곧 하나의 스테이크가 조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레이맨인이 관장하는 네 개의 스테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멕시코 시에도 멕시코인 지도자 즉 레이맨인 지도자를 가진 세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한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테이크 부장단이나 감독, 고등 평의원 보조 조직 역원들은 모두 레이맨인입니다. 몬테레이, 멕시코, 파테말라, 리마, 뉴우지일랜드 및 그외의 지역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모두 가진 시온의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이며 위대한 변혁인 것입니다. 십 이년전만 해도 이 세상에는 레이맨인 스테이크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이맨인 스테이크 부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계명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았느니라.”(니일 17:3)

그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현대의 경전의 직접적인 성취에 관해 영감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맨인에게 가서 저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저들이 네 교훈을 받아 들이면 너로 하여금 저들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니와……”(교성 28:8)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일은 진행되어 가리라. 이는 유대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에 관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과 같이 내 백성에게도 구세주에 관하여 알려질 것임이니 곧 저희 조상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니파이 족과 [레이맨 족에게]……알려질 것이다.”(교성 3:16~17)

이 간증은 바로 물몬경을 일컫는 것입니다. 물몬경의 진리를 알려고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물몬경을 읽는 모든 레이맨인은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며 물몬경은 그들의 기록이며 자기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간증은 레이맨족과……에게 알려진 것이다.……이상의 기록이 실려 있는 이 판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보존되었나니,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레이맨인이 자기 조상을 알고 또 주의 약속을 깨닫게 되며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에 힘 입으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며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교성 3:18~20)

요셉 스미스가 교회를 조직했을 때 행한 첫 번째 일 중의 하나는 스스로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의 형제들 즉 지바 피터슨, 팔리 피이 프렛, 올리버 카우드리 및 피터 휘트머를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몸소 저들과 함께 가며 그 가운데 있으려니와 나는 아버지께 향한 저들의 변호인이니, 저들을 이길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교성 32:3)

레이맨 백성의 발전과 성장은 모든 물몬의 세계와 전 교회 프로그램과 기독교 세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1963년에 칙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삼십 퍼센트가 레이맨인이었습니다. 한 해에 이만 오천명이 칙례를 받았습니다. 1970년은 그 수가 더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리에 대한 레이맨인의 반응을 시사해 줍니다. 한 레이맨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흔히 물몬이즘으로 불리우는 이 복음은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 기억하려고 노력해온 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갑자기 되살아 났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어떤 것을 생각

하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생각난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레이맨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바호족의 한 훌륭한 형제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알아 왔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커다란 돌로 한 가운데가 막힌 길에 부딪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쪽으로만 다녔고 여러분도 다른 한 쪽 길만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께 뭉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앙 아메리카에 약 삼만의 레이맨인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는 불과 몇년 내에 이룩된 결실이라는 점을 여러 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약 십만에 달하는 폴리네시아인이 있으므로 우리는 대략 이십 오만의 레이맨인 회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십 오년 전에는 대강의 어림수로 보건데 약 수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삼십년의 짧은 기간에 이십 오만명을 회원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백여년 동안 폴리네시아인과 함께 선교 사업을 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비 레이맨인과 똑같이 이년간 선교 사업을 행하는 수백명의 레이맨인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은 주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 여개의 선교부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네 개의 선교부는 모두 레이맨인 선교부인 것입니다. 즉 멕시코 북 선교부, 파테말라—엘살바돌 선교부, 멕시코 선교부 및 통가 선교부가 그 대표적인 선교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느 백성보다도 레이맨인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부 가운데서 우수한 선교부를 스물 한 개 선정했는데 이중 아홉개가 레이맨인 선교부입니다.

현재 멕시코 북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는 각각 오십 삼명의 개종자를 칙례했습니다. 멕시코 북 중앙 선교부의 선교사는 삼십 사명을, 멕시코 동남 선교부는 삼십명을 칙례했습니다. 레이맨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칙례를 주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현재 다른 어느 백성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잃어온 진리를 인식하는 것 같이 보이거나 그들은 잃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아빈아다이는 화형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만민이 바라볼 때가 임하리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대면하여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자백할 것이요.”(모 16:1)

기아나(남미 북부에 있는 지방)를 제외한 남미 모든 나라, 중앙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 전역과 미국의 모든 주에 복음이 전파되고 개종 사업이 진행되며 레이먼인 선교사들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이먼인들은 선량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정직한 백성입니다. 물론 어떠한 단체 속에도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만 대체로 보아서 레이먼인들은 온화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백성입니다.

아마 미대륙에 있던 열 두 제자의 일부도 레이먼인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인 사무엘은 레이먼인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비길데 없으리만큼 의로웠던 이백년 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이백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분열이나 파당 행위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구속에 속했고 서로 사랑했으며 다툼이란 없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힐라맨의 이천 젊은 용사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었으나 그들의 두려운 신앙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이먼인은 본래부터 신앙이 강한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레이먼인을 축복하셨고 기꺼이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대륙에 있는 레이먼인을 방문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신앙을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으며,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보이지 아니하였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본 바 위대한 일을 유대인 중에서 본 자가 없고, 너희가 들은 놀라운 일들을 유대인 중에서 들

은 자가 없도다 하시니라.”(니삼 19:35~36)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종족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었으며 여왕의 유혹에 항복하느니 보다는 감옥을 택한 유덕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는 열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조인 이삭이야말로 영원하고 위대한 예언자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선조인 또 한분의 위대한 예언자는 아브라함이었으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견고 이야기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의 선조인 것입니다.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왕족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혈통으로 여러분은 최고의 목표를 성취하고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밤 일년 전 이곳 어셈블리 홀에서 교회의 지도자 앞에서 한 사랑스러운 젊은 자매의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팔년 전에 몇 벌의 옷을 어깨에 걸치고 구두통에 약간의 물건을 담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친한 가정 출신입니다. 저의 백성은 미천하나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가방에 많은 옷을 넣어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재산이 아닙니다. 저는 등에다 몇 벌의 옷과 소유물을 담은 구두통을 지고 가더라도 저는 부자인 것입니다. 저는 진주처럼 값지고 금처럼 비싸고 그의 세상에 있는 어떤 값진 물건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베린이었습니다. 저는 그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위해 신전에서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레이먼인이 의로울 때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축복이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왕가의 혈족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및 리하이의 후예인 것입니다. ○

# 잠에서 깨어나는 과테말라

바바라 티에트엔 제이콥스

● 근 십여년간 코델 앤더슨은 평화롭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서운 힘에 눌리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 속에서 그는 가난에 지친 이백만 명의 과테말라 인디안이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절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그 나라에서 봉사하는 동안 1957년에 있던 그들의 무서운 상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꿈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이럴 때마다 코델은 “오 주여 이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실질적인 훈련과 재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코델은 꿈을 잊고, 일하고 저축하며 과테말라에 대해 연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7년 8월 서른 한 살인 코델은 그의 소유물을 팔아 버리고 직장마저 사직을 하고 그의 아내 마리아와 네 명의 자녀를 트럭에 싣고 과테말라의 코반 시로 향해 떠났는데 이 시는 인구가 만명

정도였으며 주변에 이만명이 살았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코델은 이들이 의롭고 번창하는 주민들이 되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뒤떨어진 인디안들로부터 우정과 존경을 얻을 때까지는 이들에게 새롭고 훌륭한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안 그는 먼저 산간을 여행하면서 그들에게 교육 영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인디안 생활을 지배해 오던 미신이나 전통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 이년 동안 이들과 사귀고 모든 두려움을 씻은 후 그는 일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저슴치 말고 행합시다.” 라는 울손 프레트(교회 초창기의 십이사도 중 일원임 1811—1881년)의 말이 그의 껌전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마음씨 고운 코델은 다시 한번 그의 가족을 이끌고 핀카 발파라이조(파라다이스 계곡 농원)가 있는, 십육 마일 떨어진 곳으로 들어와서 이곳에 살고 있던 사십 가구의 포콘치 인디안 족과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우나 단호히 코델은 그들의 당면 문제와 재앙을 이해시켰습니다. 그의 첫째 목표는 예방 주사와 위생 시설을 포함해서 개량된 영양과 초기의 의학 진단을 통해 어린 아

이의 높은 사망율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의사라고는 한명도 없었으므로 미군에서 복무할 당시 배운 위생병으로서의 지식을 동원하여 기형적인 영양실조 증세 및 다른 형태의 영양실조 증세와 유행성 감기, 이질, 설사, 장티푸스, 폐렴, 피부염 및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 등을 치료했습니다.

주례 진료 방문시 코델은 두 살 난 어린 소년이 한 할머니의 말라 붙은 것을 빠른 것을 보았습니다. 미구엘리토라는 이 아이는 거의 발로는 서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태어난지 사개월만에 그의 어머니가 죽어서 그는 주로 옥수수 죽과 커피만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귀와 머리는 피부병으로 헐어 있었고 그의 배는 단백질 결핍으로 마치 축구공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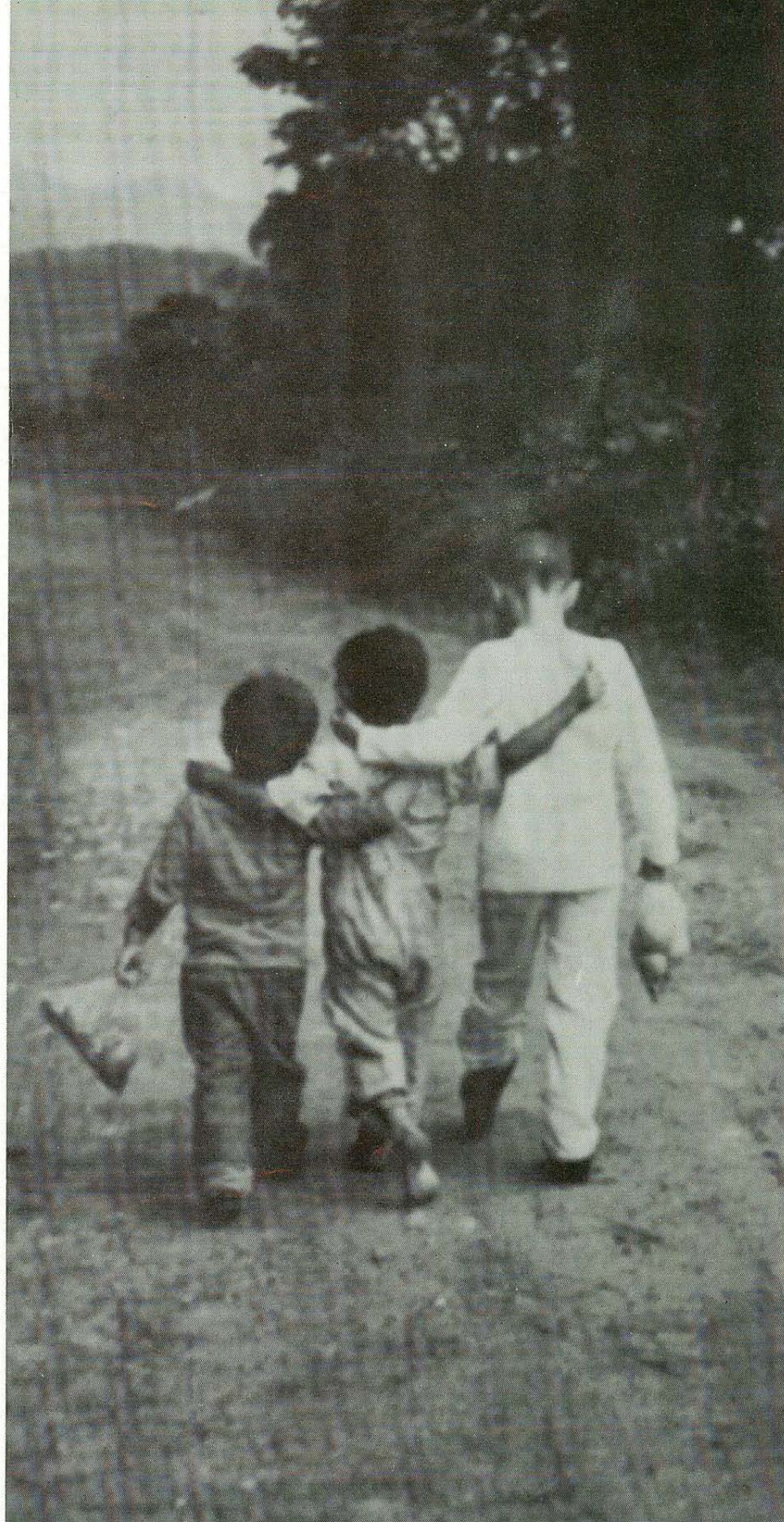
코델은 할머니에게 미구엘리토를 자기 집에다 데려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년 후에 그 아이는 또 폐렴으로 거의 다 죽은 채 코델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인내와 사랑과 영민한 보호로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년의 폐렴은 완치되었으나 코델과 마리아는 왜 십삼 파운드의 미구엘리토가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지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불

코델(엔더슨)의 농장에 있는 세명의 인디안 소년이 진흙 길을 함께 걸어 내려가고 있다.

조차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망에 싸여 그들은 구충약이 그와 같은 약한 체질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유아 용량의 사분지 일 정도를 복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약이 큰 효과를 보아서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 식사 시간마다 두 시간씩 음식을 먹었습니다. 육 주 후에는 칠 파운드 가 더 늘었고 미구엘리토는 걸으면서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네 살이지만 두 살짜리 아이의 평균 크기만 하고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미발육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았고 행복하며 매우 건강한 밝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코델의 다음 목표는 인디안들에게 현대적인 농업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계획한 가축과 가금과 돼지와 야채 재배 등은 농사법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들이 먹는 콩이나 옥수수에 대치할 조화된 영양식으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턱대고 일만 한다면 이들이 번창하게 되도록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각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을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은 각 농원이 하나의 기업체처럼 운영되어 확장을 해가며 자체 내의 노임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관찰과 참여를 통해 인디안에게 일의 계획을 가르치는 한편 이를 받아 들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식으로 반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아침에는 유치원과 일학년 반, 오후에는 이학년부터 오학년 반까지 개설해서 정식 자격을 가진 말일성도 교사인 프레디 레노소와 과테말라 시에서 온 말일성도 자매인 로시타 에스트라다가 가르쳤습니다. 현재에 삼십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네 시에는 물문경을 교재로 사용하는 스페인어 강좌가 인디안의 방언 이외에 다른 언어를 말하고 쓰고 읽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성인을 위해 열립니다. 정규적인 교재를 갖는 문학반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해 열립니다. 토요일 오후 소년들과 성인 남자는 목공소에 가서 그들 가정의 비품용으로 침대나 책상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져다 주려는 코델의 계획의 근본 원칙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둘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농원의 주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자 이들은 조그만 곡식 창고에서 주일 학교와 성찬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가 스물 다섯 명이 되자 이 모임은 발파라이조 구룹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 12월 까지 모든 교회의 정규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부 회원의 반 수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대제사, 한 명의 장로, 두 명의 제사, 두 명의 교사, 네 명의 집사가 있습니다.

코델이 약 삼년 전에 그의 550에 이커의 농원을 인수했을 때 그 농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는 저질의 사탕수수밭 삼십 에이커와 원시적이고 낡아버린 사탕수수용 불방아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건물도 없었고 땅을 갈 도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코델은 기본적인 농기구를 구했으나 끊임없이 그는 여분의 부족과 한번 고장나면 이를 고칠만한 자금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목장일과 건축에 경험이 없었으므로 실험을 통해서 이를 배워야 했습니다. 닭을 치기 전에 그는 닭장을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닭들이 날 수 있게 되자 그는 나무 판자로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닭의 거름은 사탕수수의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인디안들은 보충 음식물에 대해 의심했고 야채를 심는데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옥수수만이 유일한 식량이 되고 야채는 가축이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코델은 캄캄하고 비오는 한 밤중에 매우 지저분한 상태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 땅을 고생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인디안들은 그들 주변에서 생기는 질환은 그에게 알려지도 않으려고 했으나 그들의 치료나 요술이 실패하자 할 수 없이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델은 라임 열매로 치료하던 손의 깊은 상처나 닭 똥을 바르던 상한 귀를 고쳐야 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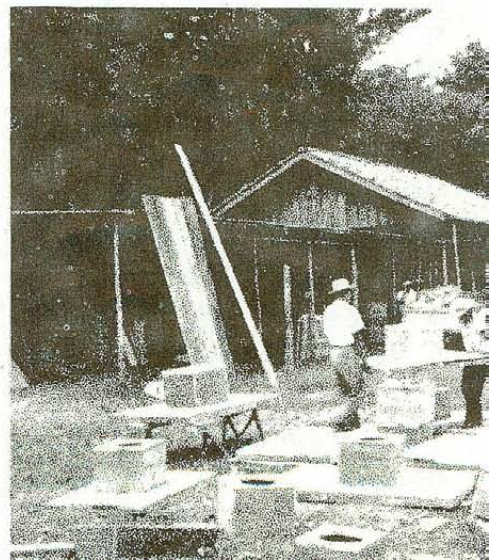
인디안은 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코델은 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농원 학교에 출석시키고 저녁 때에는 스스로 저녁반 모임에 참석하고 이곳에서 스페인 말을 배우게 하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

이들을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단이 없다면 경전이나 교회의 지침서 만으로는 별로 신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물문경에 담긴 가장 중요한 말들을 이들 성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슷하게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점차로 물문경의 어휘에 대한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교회 회원에 대하는 비회원의 비협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이며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칩페를 받은 사람은 모든 지방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비난을 받기 일수며 비싼 가격으로 옥수수와 콩을 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인디안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비한다면 매일의 문제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스무 살 난 미구엘 막스는 키가 오피트 오인치가 되는 멋진 인디안이었습니다. 이년 전만 해도 그는 청결함(도덕적 혹은 육체적), 책임, 충성, 주도권, 성취, 구원이라는

左下の 그림은 위생 시설을 갖춘 건물의 건축 모습. 中の 그림은 미구엘 막스가 새로운 가옥을 짓는 모습. 인디안 소년들의 선생인 페르디난도 모라가 그를 돕고 있다. 右 코델엔더슨이 이곳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주고 있다.



말의 뜻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흙이 잔뜩 묻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는 아버지에게 할당된 밭에서 낮 동안 일했으며 밤에는 창문이나 마루도 없는 대나무와 벽돌 오막에서 잤습니다. 진흙 바닥에 앉아 그는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당시 그는 코델을 만났는데, 코델은 그의 주위 사람은 모두 술을 먹는데 유독 술을 안 먹고 제정신인 이 인디안 소년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인디안 식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자 결심하는 데는 육 개월이 걸렸으며 한 때는 이를 중단했으나 진보는 팔복할 만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회나 물론경 반에 참석한 최초의 인디안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이 농원에서 스페인어를 포콘치어로 통역하는데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인카파리나(값싼 단백질 대용식)를 마시는 영양 프로그램에 응한 사람이었으며 야채를 제배한 최초인이었고 칩체를 받은 최초의 포콘치인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가정 복음 교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모든 금식간증 모임에서 강한 확신에 근거한 간증을 합니다.

모든 인디안들을 미구엘 막스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희망으로, 코델은 인디안을 계속 고용하고 교육시키며 개종시켰으나 이렇게 하는데는 그의 개인적인 희생과 가족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나, 미구엘 리토처럼 영양 실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그는 양자로 삼았습니다. 현재 그는 자기 집에서 서른 한명의 의식주 문제와 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델과 마리아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고 농원 안에 있는 집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일곱 자녀(세 명은 과테말라에서 출생함)와 함께 그들은 세 방에서 잠을 자나, 종종 다른 고아들을 위한 침대나 침구가 부족하기 일수였습니다. 코델이나 마리아는 모두 저녁 열시 반까지 일을 했습니다. 서른 아홉 명의 식구와 종종 방문하는 손님의 식사를 위해 마리아는 하루에도 두번씩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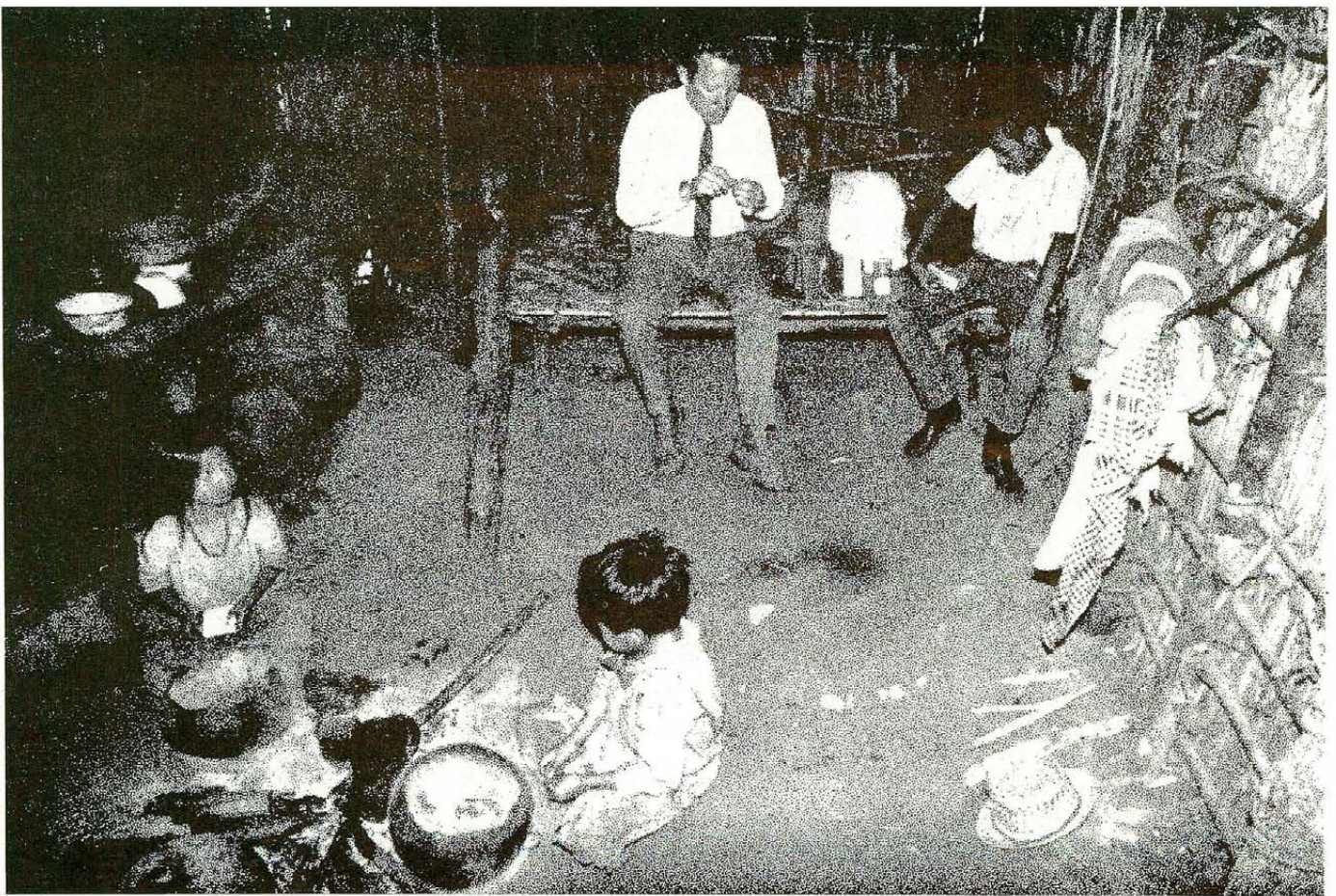
코델은 농원의 모든 일을 감독해야 했는데 왜냐하면 과테말라 노동자들은 장비와 절차에 완전히 책임질만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난 후 저

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열 한 명의 이발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합된 가족으로서 일하면서, 코델 가족과 이백 사십 명의 인디안은 첫 이년 동안 실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빈 손으로 시작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1. 열 명의 인디안 회원이 십일조를 지불하고 많은 구도자가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한다.
2. 건축 중인 예배 장소.
3. 책상과 시설을 갖춘 학교 건물(학교의 계획으로 학생은 모든 야채 밭에서 일을 도우며 300마리의 양계일을 돕는다.)
4. 평일 밤에는 교육 영화와 오락 영화를 상영하고 일요일 저녁은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
5. 축구, 농구, 정구, 탁구, 보트, 수영, 독서 등을 위한 시설을 제공해 주는 오락 프로그램.
6. 사십개소의 옥외 변소. (1970년전까지만 해도 인디안들은 옥외 변소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7. 부적당한 오두막을 깨끗하고 현대적인 가옥으로 대체하는 건축 계획. (새로운 가옥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끔 인디안들은 창문을 내고 가구를 만들며 더러운 마





엔더슨 형제의 활동 중에는 의료 보조를 요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루를 철거하고 벽난로를 만들어 현재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량했다.)

8. 진기를 대비하여 이에 적응되지 않은 야채, 쌀기류, 과일 나무에 물을 대는 설비를 갖추.

9. 백마리의 돼지(현재는 거의 다 팔림)와 백 두의 소.

10. 양재 계획. (부화한지 하루된 천 팔백 마리의 병아리를 매달 한 번씩 구입한다. 이 사업의 이익금은 주로 학교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11. 고기를 기르는 저수지.

12. 잉여 계란, 병아리, 야채, 치즈 및 버터를 팔 수 있는 코반 마을에 세운 작은 상점.

13.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위원회. (1970년만 천 회 이상의 방문을 함. 그 전에는 평균 다

섯 살이 되기 전에 어린 아이의 50 퍼센트가 사망했다.)

14. 개선된 영양 관리. (임산부와 취학 전의 아동은 필요한 음식의 보충을 받는다. 모든 취학 아동은 미국의 해외 구호 기구인 케아\*로부터 제공되는 옥수수, 야채 및 인카 파리나를 섞은 진한 우유 등으로 된 치즈 점심을 매일 제공받는다. 정기적인 우유 공급은 이에 익숙치 못한 사람에게 복통을 일으킨다.)

15. 번영. (각 노동자는 과거에 비해 평균 삼배가 되는 최저 임금을 매일 받는다.)

농원이 자영할 수 있는 기틀이 잡히자 코델은 더 많은 인디안들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그는 농원 건너편 산꼭대기의 마을에 있는 인디안 중 병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일 주일에 한번씩 자전거로 왕래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지부에 속해 있는 젊은 인디안을 자기 집에 데려다 약 육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 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이먼 백성에 관한 예언을 보면, 저들에게 복음이 회복될 것이며 어둠의 비늘이 저들의 눈에서 걷히기 시작하며 저들은 빛깔이 희고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나이 30: 5~6 참조.) 오랫동안 가난과 재앙 속에서 고생하던 파테말라의 소수의 레이먼인들은 사랑과 인내와 근면과 희생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앞으로 더 많이 무지한 가운데서부터 깨어날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한 백인 형제와 그의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 CARE(케아) : 미국의 구제 물자 송부 단체. 미국의 26개의 종교, 노동, 자선 단체로 구성된 자발적인 구제 기관. 해마다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있는 4천만 명의 빈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로요? 우리 집을 떠난단 말이예요?”

“그렇단다. 우리 대가족을 위해서는 그 집이 훨씬 편하단다.”

완다는 먼저 실 뭉치를 쳐다보더니 다시 어머니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셀비어 꽃이 무성한 언덕 위로 줄달음질 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녀의 긴 스커트 자락은 그녀의 발목까지 덮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숨이 차서 모래 바닥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솜털같은 흰 구름을 쳐다 보았습니다. 백인의 집? 우리는 나바호족인데 백인이 우리를 그들의 집에서 살게 한단 말인가?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바호족으로 살겠다! 나는 백인의 생활 방식을 좇지 않겠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글썽거렸으나 그녀는 이를 참았습니다. 나바호족은 울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오른 그녀는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의 전설을 웅단에다 담아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물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백인의 세계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는 그녀의 오두막으로 돌아오면서 웅단의 모양을 생각했습니다.

완다가 그녀의 웅단을 짜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이곳 여인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자기 혼자서 첫 웅단을 짠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다는 빅토리아처럼 우리 나바호족의 보배가 될거야 참 자랑스러운 아이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완다의 귀에까지 들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웅단을 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는 근 삼년간을 우리와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녀와 나를 비교할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바호족이다. 결코 백인 학교에는 가지 않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웅단이 되겠는걸.”하는 소리가 잔등에서 들렸습니다. 완다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빅토리아, 언제 왔니?”하면서 그녀는 계속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너를 지켜 보고 있었단다. 너의 손은 민활하고 실수라곤 없었지. 완다야,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니?”라고 빅토리아가 물었습니다. “나의 첫 웅단은 나의 할아버지에 관해서였단다.”

“너도 이야기를 담은 웅단을 짰니?”라고 완다는 질문했습니다.

“물론 나도 나바호족의 한 사람인걸.”하며 빅토리아는 완다의 곁에 앉아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써 보였습니다. 완다는 그녀를 쳐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백인들과 생활하며 백인 학교에 다니지 않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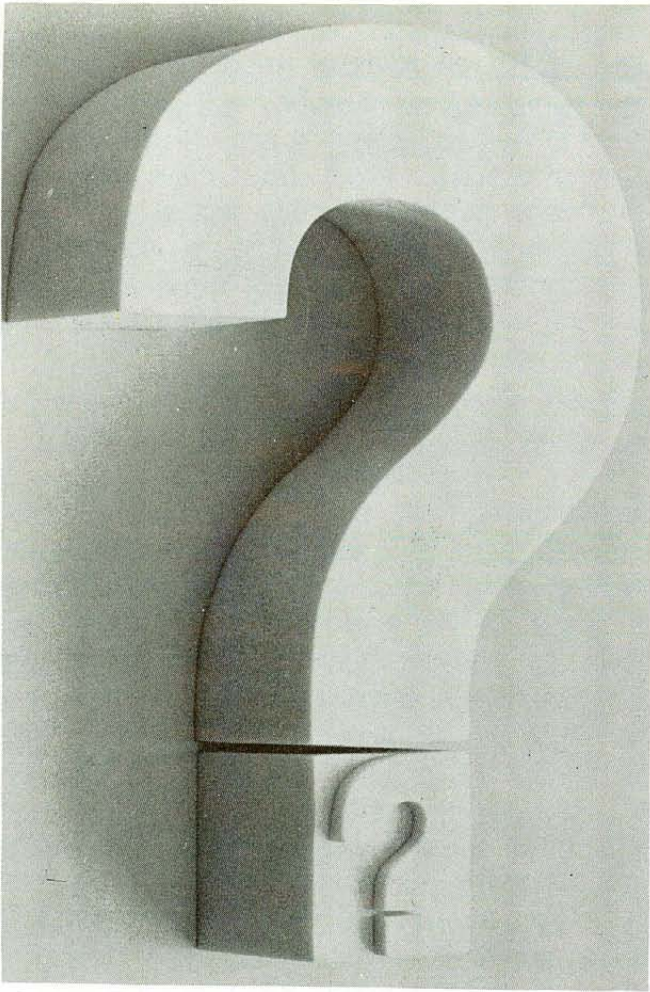
“그래 내 가족과 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다닌단다. 나는 백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나는 역시 나바호족의 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백성이 양면의 좋은 문화를 갖기를 원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백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점과 우리가 항상 지녀왔던 좋은 점을 모두 갖게 되지 않니. 언젠가는 너도 학교에 가게 될 것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거야.”

빅토리아가 떠나자 완다는 막 떠난 빅토리아가 한 말들과 자기의 남은 느낌이나 생각이 비교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녀는 이 일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이 계곡을 비치기 시작하자 완다는 그녀의 베들 앞으로 급히 다가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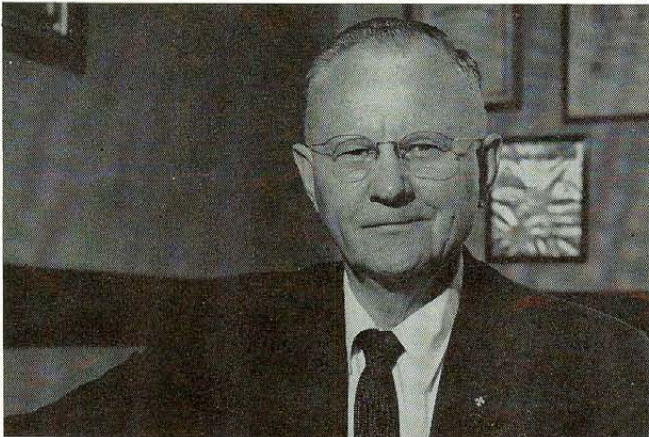
그녀의 손은 전날처럼 빨리 정확하게 움직였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로소 그녀의 웅단은 완성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완다의 작품을 보러 모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키요미아는 이 웅단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오래 동안 응시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완다에 몸을 돌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딸아”하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녀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말한다. 그러한 것은 이미 과거사인 것이다. 그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백인의 학교에 가서 세상에 대해 배워 이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미래에 관해 말했단다. 그러면 너는 훌륭한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 백성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참된 나바호족이다.” ○



## 질의 응답

신권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를 왜 그렇게 주요시 여깁니까?



● 모든 지식의 원천은 인간의 이익과 지도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인류의 이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니파이의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 (나이 25 : 23.)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신권의 권능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하므로써 신권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는데 이 말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인간의 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법과 기술을 습득했다면 그러한 것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의학은 모든 병고침을 위한 계획과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질병을 모두 치료해 줍니다. 의술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한 다친 몸은 그것을 스스로 고치는데는 상당한 양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많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복잡 다단한 상관 관계를 갖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모든 부분은 훌륭한 건강 상태와 육체적인 인내력을 갖고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질병이나 전염병, 사고 등을 겪게 되며 의학이 제공하는 기술과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훌륭한 건강을 토론하는 데에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인 지혜의 말씀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시(교성 89편)에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게 이로운 지상의 생산물에 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의약품의 사용이나 전문의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인간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이 이를 맡아 종종 기적을 행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어 믿기는 하나 고침을 받을 신앙이 없을 때에는 약초와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 따듯이 간호하며...

“또 교회의 장로 둘 또는 그 이상을 불러 기도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게 할지니라...”

“거듭 말하거니와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를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 : 43, 48)

우리는 신앙을 가진 가정에 병고침을 위한 의식이 우리 주님의 복음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는 의사와 병고침을 위한 신권의 권능과의 의학적인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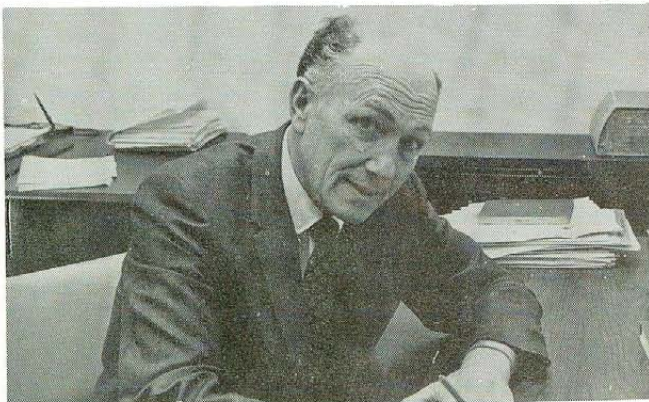
한 의사의 14개월 된 아이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많은 조언자가 왔었으나 그들의 노력은 다만 그 병에 대한 증상에 대한 것 외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은 40도를 오르내렸으며 가족은 그의 회복을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감독과 그의 보좌가 이 가정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그들은 이 어린이에게 축복을 행했습니다. 이 축복이 막 끝나자 그 가족의 친구였던 한 인턴이 방으로 들어 와서는 왜 그에게 수혈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O형이었으므로 그 아이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체온은 40도에서 정상으로 내려갔고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도움이 본질적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생명은 가망이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가 나타나서 축복이 행해진 후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그 아이의 생명은 되살아 났던 것입니다. 현재 그는 성숙해서 사랑스런 아내와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술의 실제 처방과 신권의 축복 사이에는 서로 돕는 상호 관계의 노력이 있어 이 양자가 결합되어 병을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이적인 치료와 병고침을 받는 특별한 권능은 신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십이사도 정원회)

어느 정도의 키스가 지나치지 않을까요?



● 이 질문은 매우 재미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키스의 횟수를 묻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어느 정도”의 키스라고 하신 것은 이 문제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에게 한 키스는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소녀가 어떤 남자 친구에게 한 첫번째 키스도 마찬가지로 단 한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첫번째 키스가 이를 자주하게 이끌며 심지어 불행한 결혼으로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왜,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키스를 해야 할까?


키스란 두 인격체 사이의 깊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 즉 여러분의 육체적인 성숙, 영화, 광고, 음악, 이야기, 기사, 대화 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애정을 싹트게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정을 주는데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키스란 만족감보다는 자극적인 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번 하면 더 이상 자주 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젊은 한 쌍이 키스로서 애정을 나누기 시작했다면 혹은 다른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를 시작했다면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흥미의 초점이 되려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흔히 이러한 한 쌍은 다른 뜻있는 인격적인 차원을 탐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마음, 성격, 성숙도, 종교적인 믿음, 도덕적인 가치 및 목표를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참되고 영원한 사랑으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애정은 순수한 우정과 형제애로부터 발전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키스 자체를 위한 키스는 보다 애정을 유발시키며, 많은 선량한 젊은이들은 그들이 실제로 원했던 것보다도 깊이 이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의 지도 원리로서, 나는 젊은 남녀의 애정이란 두 사람이 손을 잡던, 팔을 끼고 걷던 혹은 키스를 하던 간에 그 정도와 성격에 있어서 그들의 전반적인 관계의 성격과 일치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애정이란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목적이 당사자를 해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싹이나 꽃이나 나무 열매가 자라듯이 애정도 성장하고 서서히 꽃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애정은 마음과 인격과 신앙에 깊게 뿌리박은 더 크고 발전된 관계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 그러한 키스가 가능한가는 그들이 가지는 관계의 성격과 의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

로웰 엘 베니온 (유타대학교 부학생처장)



# 신전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말일성도가 신전에 관해서 알아야 할 대부분의 사항은 신전 그 자체 내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관 장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꼭 알아서 신전에 관해서 여러분의 적합한 이해를 돕고자 느끼는 몇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엘레이 엠 크리스티안슨  
십이사도 보조 겸  
교회 신전 담당 협의자

## 신전의 목적

●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최초로 신전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결혼 의식의 인봉을 위해 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은 신전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봉받기 위해 신전에 갑니다. 또한 죽은 자로서 살았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 대리 칩례를 이곳에서 행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 대리로서 인봉과 엔다우먼트를 행하기 위해 신전에 갑니다.

이러한 모든 신전 의식은(침례, 성임, 엔다우먼트, 결혼 및 다른 인봉 의식) 산 자와 죽은 자의 진보와 승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 신전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젊은이는 벨기세택 신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반 결혼을 한지가 최초의 신전 방문 예정일로부터 일년이 안되었거나 회원된지가 일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인봉과 엔다우먼트를 허락해 주는 대관장단의 서한 형식의 특별한 허가증을 받으므로써 신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전에서 결혼을 하려면 군이나 주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결혼 허가서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 법원에서 인정한 결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추천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독과 접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접견은 먼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감독과 갖고 그 다음은 스테이크 부장과 갖게 됩니다.

1.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2. 지역 지도자나 총 관리 역원을 지지하는가
3. 교회의 가르침이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며 따르는가
4. 습관성 약을 삼가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가
5. 도덕적으로 순결한가(간음, 동성애 등은 없는가)
6. 교회 내에서 훌륭한 신분을 가진 회원인가
7.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은가

만일 여러분 자신이 합당하다고 느끼며, 감독이 여러분을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추천서를 주며, 여러분의 태도가 신앙심에 차있고 의로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 의지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훌륭한 경험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복장

결혼 의식이나 그 외에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평상시의 복장을 깨끗하고 흰 복장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휴 비이 브라운 장로는 이에 대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평상시의 복장을 벗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도 바꾸어야 하며, 깨끗하고 흰 복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순결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듣는 이야기와 보다 영원하고 인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많은 이로움을 얻게 되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신전 의식에 필요한 모든 복장은 신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신전에 가면 여러분을 시종들어 주는 사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전 의식 집행자, 접대자 및 그 안에 일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의 신전 의식을 아름답고 뜻깊은 경험이 되게 도와 줍니다.

## 엔다우먼트

신전에서 결혼(혹은 부부로서 인봉)하기 전에 누구나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신전 엔다우먼트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정의하여 보겠습니다. 엔다우먼트란 주님의 집에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났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가게 해주며 경계를 서고 있는 천사를 지나 그들에게 중요한 암호 즉 성 신권에 관한 표적이나 상징물을 주어 여러분의 영원한 승영을 얻게 합니다.” (브리감 영의 설교집, 테저렛 출판사, 1941년, 416페이지.)

여러분이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지구를 창조하여 인간을 살게 하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영을 얻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전 십이사도 중 한 분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엔다우먼트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의 신전에서 집행되는 신전 엔다우먼트는 인류의 역사상 위대했고 웅장했던 과거 경륜의 중요성과 그 결과 및 현재의 중요성에 관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은 창세기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의 상태, 그들의 불복종과 그 결과로 인해 축복된 땅에서의 추방, 노동과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외롭고 황량한 세상에서의 상태, 아담의 범법이 대속되고 구원의 계획이 열린 상태, 큰 배도의 시기, 고대의 권능과 특권을 가진 복음의 회복, 현재처럼 의를 위한 개인의 순결과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 복음의 생활에 엄격히 순응해야 하는 때...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은 엄격히 미덕과 순결의 법을 준수하며 자비롭고 유덕하며 인내심이 있으며 순결하겠다는 성약과 같이 개인적인 면에서 어떤 의무감을 구체화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재능과 물질적인 수단을 바쳐 복음의 전파와 민족의 정신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진리의 대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며, 세상이 그

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큰 준비를 하는데 공헌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모든 성약을 받아들이고 모든 의무를 맡았을 때 약속된 축복은 그러한 조건 의 성실한 준수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전 의식이란 다름아닌 영적인 승화와 성별의 의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엔다우먼트 의식은 도덕적인 생활, 높은 이상의 세계로 승화, 진리에의 헌신, 국가에 대한 애국심, 하나님께 충성심을 다하는 성약에 공헌합니다.” (주님의 집, 테저렛 출판사, 1968년, 83~84페이지)

엔다우란 말은 부유하게 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래 지속되고 가치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은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1. 이 의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받은 자는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칠십인 장로 제일 정원회 부르스 아아르 메콩키 회장)

2. 이것을 받는 자는 또한 지식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한 지식을 받습니다...” (메콩키 회장)

3. 제단에서 인봉될 때 그 사람은 그의 엔다우먼트의 일부로 영예로운 축복과 권능과 영광을 받습니다.

## 성스러운 비밀이 아닌 축복

신전 의식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므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의로운 생활을 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공개됩니다. 이 의식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헌납된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이 의식의 성스러운 성격 때문에 신전 밖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승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이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에는 축복이 옵니다. 신전 사업에 참여함은 복음의 원리 가운데 분명하고 유용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신전은 명상과 기도의 장소입니다.

신전은 지상의 성역이며 조그만 천국이며, 사람은 계속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신전에 자주 들러 그의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

●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생활이 눈부실 정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새로운 회원은 그들의 일상 생활과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보수가 적고 명예가 덜 하더라도 다른 도시나 시골에서 직업을 구할 것 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머리를 앓고 눈물을 흘리듯이 그러한 처지로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갖지 못했던 사랑의 단맛을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그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고후2:3 참조.)

그들의 이야기는 보통 영감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간증에 차 있습니다. 이 유럽 태생의 말일성도 가족의 개종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두 물몬 선교사의 노크 소리가 스웨덴에 살던 헤레이 가족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떨리는 스웨덴 말로 그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저드 헤레이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토록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직장에 갈 시간이므로 다른 시간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고 그들은 약속한 시간에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윌리 저드 헤레이가 1956년 스웨덴 폴레프테에 있는 교회에 소개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들이 내가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그 무엇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저드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으며

로 많은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들을 꺾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훌륭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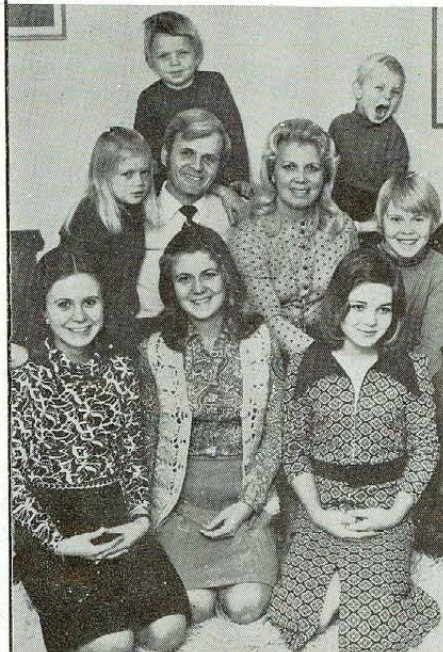
선교사가 그녀에게 살아계신 예언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하던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예언자가 있다면 멋있을 거야!”

그 후 스웨덴의 다른 도시인 엔케핑에서 빌리의 어머니는 저드를 많이 모

브리감 영 대학의 부교수인 해롤드슨 박사는 1969년 이곳으로 오기 전에 시카고 지역 “유우 에스 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지의 편집인이었습니다. 전에 감독과 고등 평의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샤론 웨스트 스테이크, 오렐의 제14와 드에서 아론 신권 성인반 서기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 변화 있는 생활

에드윈 오우 해롤드슨



인 자기 친구 앞에서 “이애가 내 머누리인데 물론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저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관해 내가 전에 듣지도 못한 많은 나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교사가 나에게 가르쳐준 바를 말해도 괜찮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요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수 년동안 아프리카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일했던 한 나이든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드의 나이는 그 때 스물 두 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기는 물론 교회에 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나는 매우 기뻐하며, 나는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경쾌한 기분으로 웃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의 남편도 역시 간증을 얻었으며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리는 그 당시 폴레프테의 신문인 니아 놀란드의 야간 편집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빌리가 신문사에 있기가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측에서 그가 점점 열렬한 물몬이 되는 것을 알자 이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저드는 회상합니다.

후에 가족은 물몬이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인 스트림슈타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년 내에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와 번창하는 상향회를 가진 물론 지부가 탄생되었습니다. 다른 교파들은 이 소규모의 물론 집단에 맹렬히 공격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1963년 저명한 스웨덴의 한 목사가 “물론 교회에 관해 좋지 않은 점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도록” 파견되었다고 저드는 회상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스웨덴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온 “나이론 양말, 껌 및 물론”을 경계하라고 경고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지방의 신문에 물론교가 얼마나 나쁜 교인가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에 대해 그 목사가 공격하기 위한 집회가 계획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스웨덴의 신문은 슈트림슈타트에 있는 물론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500여 명의 군중이 집회를 갖기 위해 고등학교 강당에 운집했습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러 모여 들었고 그 당시 지부장이었으며 신문사 특파원으로 있던 윌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물론에 대해 한 시간반 동안 악평을 하자 군중들은 많은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윌리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 담당 의사는 그 목사에게 어찌서 물론교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스웨덴 사람은 쉽사리 속임을 당할 백성이 아니라고 목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행한 그의 연설은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몇개월 후에 저드는 지방 초등학교의 문제로 쾨페핑이라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자신을 소개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슈트림슈타트에 있는 당신의 용감한 소규모 물론 집단에 대해 무서운 공격을 가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교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회원입니다.”

1966년 피테보르그 근처에 있는 슈테농쿤트에 살면서 저드는 이웃 친구인 히요르디스 케른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

를 해주었으며 헤레이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히요르디스는 칩제를 받았습니다. 곧 이어 그녀의 남편인 벤그트도 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스웨덴의 “북극권”에 있는 루레에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벤그트가 이 직책에 부름받은 후 윌리는 금식 모임에서 “나의 아내는 이제 조그만 지부를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지부장까지도 이끌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헤레이 가족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인 피테보르그에서 그들은 그들의 유대인 친구인 토니 레빈의 방문을 받아 가정의 밤을 하면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한달만에 그와 그의 아내 마스자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들은 스톡홀름의 지방부 상향회지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윌리가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윌리는 최근에 베른에 있는 스위스 신전에서 인봉을 받은 레빈과 그의 세 딸을 만났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지 14년이 지난 오늘날 헤레이 가족은 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매우 훌륭한 나날을 보내며 주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웨덴의 제이 도시인 피테보르그의 제일 지부에 속한 회원입니다. 그들은 스웨덴의 저명한 사들에게 그들의 간증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었습니다. 윌리는 여러 신문에 실린 교회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재물을 실은 적이 있으며 물론 개종 가족에 관한 기사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피테보르그 티드닌젠지 일요 판의 특별 기고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토트 헤이어달이 그가 만든 파피루스 보트인 라 호로 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헤레이 형제는 그의 여정을 물론경에 나오는 야렛과 리하이의 여행과 비교하여 기사를 실었습니다. 얼마 후에 헤이어달의 조국인 놀웨이의 한 유명한 신문사는 헤레이 형제의 자료에 근거를 둔 장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1968년 저드는 스웨덴의 장한 어머니 열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대회에 뽑힐 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찬에서 그는 우연히 저명한 스웨덴의 잡지 편집인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물론임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서신 연락을 합니다. 그는 물론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대회가있는 다음 날 다른 최종 선발자 중의 한 사람이 저드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어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 왔습니다. “우리는 약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간증과 교회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사가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레이의 일곱 자녀 역시 열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 일에 열심이었으며 각 분반 활동이나 서기 일이나 음악, 무용,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윌리는 지부장단의 보좌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드는 지방부 상향회 임원 및 초등학교의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 뜨기 전에 신문배달을 하는 열살짜리부터 열 여덟살짜리의 자녀들이 이 헤레이 가족의 전 식구입니다. 그들은 또한 말을 훈련시키고 이를 팝니다. 여름에 그들은 스웨덴, 놀웨이, 핀란드에서 모이는 사백명 내지 육백명에 달하는 어린이를 위해 슈트림슈타트에서 관광목장을 경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면 헤레이 가족은 이미 몇 시간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과 학과가 끝난 후에는 하루를 교회 활동으로 마감합니다. 가정의 밤인 월요일 저녁은 가족이 함께 모여 노래를 하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들은 하루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흥미롭기 때문에 행복하기만 한 것입니다.○





# 오늘밤에는 안오겠지

마가렛 브롬리

● **짐 프로그손**은 컵에 남은 것을 마저 마시고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다. 그는 잠시 **오스트랄리아의 황량한 들판을** 거쳐 외진 시골 농부의 집 천정을 할퀴는 **심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보, 그 장작은 오래 탈 것 같소.”라고 갈색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부인 매리**에게 말했다. 그녀는 타오르는 나무 난로에서 돌아서며

“**만일 오래 타지 않으면** 당신이 나가서 장작을 가지고 와야 해요.”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⑤ **짐**은 그녀가 계속해서 “여보, 오늘 밤 차를 수리해야 하나요?”라고 말을 덧붙일 때 그 소리에는 **걱정과 염려의 빛**이 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젖은 겹옷을 입으며 한기로 두 어깨를 움추리는 그의 대답은 잘 안들렸다. 얼마 후 그는 “집안에서는 수선을 못하지 않소.”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얼른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문간까지 따라나오는 그녀**를 다시

영국에서 태어난 부름리 자매는 1943년 서부 오스트랄리아로 이민을 했고 그곳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는 페드 제5와드 상호부조회 문화의 정수반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믿음직하게 포용해 주며 자기의 걱정을 그녀에게까지 연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보...”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안타까운 듯 그녀의 손을 남편의 손에 포개며 “오늘 저녁은 가정복음 교사가 오는 날이예요. 기억하고 계세요?”라고 말했다.

“그럼.”하고 대답하며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② 깜깜한 밤에 길을 찾아 [광]으로 들어가 고장난 차를 찾으러 가는 동안 미친듯한 바람과 추위가 그에게 얽습해 왔다. 폭풍우를 피해 한쪽 구석으로 들어와 전기를 켜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잇발이 들어나 있었다.

그는 바보나 광신자가 아닌 이상 이런 날씨에 40키로나 되는 곳을 찾아 올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구나 가정복음 교사는 도시 사람이니까 오늘과 같은 밤에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③ 집은 그들의 헌신이 이러한 경우에까지 발휘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있었다. 만일 이런 날에도 그들이 온다면 그가 2년 동안의 교회 생활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그 무엇이 교회에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어쨌든 윌리엄 형제와 마쉬 형제는 꾸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매월 2번째 [금요일]에 하는 방문을 한번도 걸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집은 그들의 기록이 오늘 밤과 같은 폭풍우에 의해서 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④ 운반하는데 쓰는 차를 고치고 있는 집의 생각은 매리와 자기가 교회에 속하게 된 2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물속에 서서 침례 기도를 들으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었다. 그후 그는 새로운 삶의 문에 들어선 사람처럼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었다.

⑤ 그후부터 매리와 그는 교회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한 달이 채 못되어 집사가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곧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는 주일학교의 보

좌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 시간과 정력을 다해 교회 일에 헌신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⑥ 그것은 모두 참으로 보람있는 일들이었다. 침례를 받은지 18개월 후에 집은 장로에 성임되었고 이때 윌리엄 형제가 축복을 해주었으며 봉납된 작은 기름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프로그손 형제님, 신권을 가지고 나아가 생활하십시오. 신권은 생명 다음으로 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했다.

⑦ 그런데 그후부터 그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일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아마 트랙터가 부서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씨를 뿌릴 때가 임박했으므로 집은 심일조를 트랙터 수리하는데 썼다. 물론 부족한 심일조를 꼭 보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부터 씨 뿌리는 일이 우선적이 되고 집회 참석이 뒤로 미루어져 점점 불규칙하게 되었다.

⑧ 그러다가 농장에 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자 그것마저도 중지하게 되었다.

⑨ 자연스럽게 집은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매달 두번째 금요일에 열성적인 가정복음 교사가 그의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반시간 동안 익살을 섞어가며 그의 교회 불참을 지적했다. 집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했다. 그러나 농사일이란 일주일에 7일 하루에 16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교회 나가서 한가하게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직업이란 이마에 땀을 흘려 하나님을 예배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모두 굶게 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⑩ 집은 드라이버를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호

심일조 → 트랙터수리  
작부 → 주선  
권회참석 → 나중

환영 : ~~.....~~  
교회 참석마련 등

⑩

일요일도 평일과 같이 일

두번째 금요일은 복음교사  
무엇을 씌고서 교회 불참

1. 모세서 5:1 참조.

기름

스에 구멍을 뚫었다. 힘을 뺀 그는

숨을 몰아쉬며 연장통 근처를 더듬어 마개를 찾았으나 없었다. 짜증이 난 그는 드라이버를 연장통에다 집어 던졌다. 쟁하는 쇠소리가 났다.

일어나면서 짐은 오늘 밤에는 안 올거라고 생각했다.

광문을 열고 나가자 저센 바람이 그를 휘감아 달갑지 않은 비까지 내리는 암흑으로 빨아 들이려는 듯 했다. 마당을 건너 가기 전에 그의 걸음은 비에 흠뻑 젖어 그의 등골을 썩늘하게 했다.

그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집에 도착했다. 불어들어 오는 폭풍우를 밀어내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집안의 불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본능적인 확신이 무엇인가 어딘가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단숨에 부엌으로 뛰어갔다. 의자가 뒤집어져 있었다. 냄비가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 매리는 끓는 물통 옆에 넘어져 꼼짝 못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시간이 정지해 버리고 무엇인가에 머리를 얻어맞아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멍한 기분이었다. 얼뜻 정신을 차리고 주춤 매리 쪽으로 다가가는 그는 손목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벌써 왼쪽 관자놀이의 상처 근처가 검푸르게 부어있었고 얼굴과 팔이 뜨거운 물에 데어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는 의식 불명이었고 자색의 눈꺼풀은 힘없이 덮여 있었다. 짐은 그녀가 영영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온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기도 그녀와 함께 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영원히 아주 멀리...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차가 고장이 나 광에 무용하게 처박혀 있다니.....이러한 짐의 생각은 순간적인 것이었다. 그는 추위를 둘러보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할 수 없이 그는 방으로 뛰어가 담요를 가지고 와 서투른 솜씨로 매리를 둘

려쌌다.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애를 썼지만 초조와 공포로 우왕 좌왕할 뿐이었다. 약상자! 아마 무엇인가 도움이 되겠지. 단 걸음에 약상자가 있는 곳에 도달한 그는 급히 작은 약상자 뚜껑을 열었다. 미친듯이 약병과 약봉지를 살살이 뒤졌다. 그의 손가락이 작고 흰 플라스틱 병에 가까이 갔다. 이 병을 잠시 쳐다 보다가 도로 던져 버리려고 하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뚜껑을 열고 맑은 기름을 그의 손바닥에 받았다. 지난 날의 기억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봉납 기름이었다. 윌리엄 형제가 그가 성임될 때 준 바로 그 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쓸모없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십일조보다 트랙터가 더 중했고 교회 모임보다 농장 일이 먼저가 되어버린 지금이 아닌가!

그때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그러나 짐 프로그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신권과 그의 교회를 멀리 했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매리를 잃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의 아기도 잃어 버리는 중이었다.

매리는 아직도 의식 불명이었다. 짐은 이제야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병을 한참 응시하다가 손가락으로 꼬옥 감싸 쥐었다. 기도! 그렇다!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

그는 매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거의 반 이상 낫선 타계로 가고 있는 그녀를 다시 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새삼 두려운 생각이 그를 뒤흔들고 지나갔다. 자기 제 윌리엄 형제가 육 개월 전에 그에게 말해 준 바와 같이 신권으로 생활해야 할 시간이었다. 짐은 진정 외로움을 느꼈다. 윌리엄 형제의 믿음직한 목소리가 뼈에 사무

# 형벌을 받지 않도록 생활하라

리차드 엘 이반스

●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플라톤의 말 중에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인간들이 나의 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죄에는 근본적인 비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례나 관습 나아가서는 계율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존과 자긍과 삶의 법과 목적에 대한 존중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치루어야 할 근원적인 형벌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영상을 마음 속에 지니십시오. 인간은 자신을 존경하며 내적인 청결과 편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한 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즉 방종에 대한 질책의 회피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과정과 그 일 자체의 성질에 대한 판단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참다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는 양으로서 오히려 잘못된 생활로 인한 결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가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존재가 될 수 없으며 부도덕에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의 근원을 낭비하거나 이것이 우리를 야비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활력소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도 좋다고 말해 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어떤 물건이 생산되어진 과정 어떤 일이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경로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은 관습이나 계율이나 인간의 본성 즉 그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고 장차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해결책은 확실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를 알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인간들이 나의 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죄에는 근본적인 비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

치도록 그리웠다. 그러나 일껏 쳐다 본 시 계는 가정 복음 교사가 올 시간에서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 있었다. 폭풍우가 그들을 붓 오게 만든 것이다. 이제 별도로 없이 그는 혼자 해야 했다.

1 시간 러브  
뭉개진

✓ 축복문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짐은 뜨거운 눈물이 쏟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않고 엇갈려 도대체 정리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무척 노력을 했지만 반 밖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그는 흑하고 흐느끼며 일그러진 얼굴 위로 눈물을 주루루 흘렸다. 그의 가슴은 오열을 억제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드디어 절망적이 된 그는 머리위로 두 손을 마주 잡고 “오—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마옵시고 도와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었다. 짐은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머리를 들고 허리를 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사건들이 그에게 펼쳐졌다. 이제 그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짐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매리와 그들의 아기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교회  
결심

✓ 다시 한번 그는 매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는 불안하고 더듬는 소리로 “매리 프로그손……” 아니 그렇지 않지—완전한 이름을 불러야 되지. 매리 애레나 프로그손, 매리 애레나 프로그손.

✓ 그가 입을 열어 다시 말하려고 할 때 따뜻하고 믿음직한 손이 그의 손을 스치고 매리의 머리 위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깜짝 놀란 그는 머리를 돌렸다. 그곳에는 조용하고 인정깊은 윌리엄 형제의 두 눈이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마쉬 형제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다.

# 제시 이반스 스미스

1902~1971년

“생전에 스미스 자매가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준 즐거움과 기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마음을 사로잡는 성품으로 그녀는 어디를 가나 온정의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제시 이반스 스미스의 영전에 부친 리처드 엠 닉슨 대통령의 이 말씀은 생전에 그녀가 음악을 통해 심금을 울려준 많은 사람은 물론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수 백만명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사랑하던 아내인 스미스 자매는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남달리 유우머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재능을 그녀는 평생 동안 아낌없이 연령과 직업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1902년 12월 29일 폴트 레이크 시에서 조나탄과 자네트 부카난 이반스 사이에 일곱번째로 태어난 외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콘트라alto(최저 여성음)음성은 그녀가 1918년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에 가입한 열 다섯 살 때부터 근 반세기 동안 우리의 가슴을 울려 주었습니다.

1923년부터 27년까지 약 사년 동안 그녀는 미국 경극극 오페라 단에서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의 직업가수가 되기 위해 계속 열심히 음악공부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녀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녀의 축복사의 축복 가운데 있는 약속에 인도되어 (“그대의 목소리는 국내와 해외로 퍼지리니…… 그대에게 있는 모든 잠재된 능력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될 것임이니라”) 그녀는 고향에 돌아와서 직장을 가졌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녀의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1938년 제시 이반스는 새로운 인생의 길에 들어섰으니 즉 그 해에 십이사도의 일원이며 열 한 자녀를 거느린 조셉 필딩 스미스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그들은 주님을 섬겼으니, 스미스 자매는 언제나 남편 곁에서 그를 돌보며 부축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와 스미스 대관장이 전 세계를 순방하며 성도들의 모임을 방문하고 가끔 아름다운 이중창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므로써 국내외에 퍼졌던 것입니다. 제시 이반스 스미스는 생전에 많은 영예를 받았으니 즉 저명한 대학에서의 상, 명예로운 황금의 이삭줍기 상, 감사장과 상패 등은 모두 그녀의 독특한 유우머와 깊은 인간애와 영감, 온정과 사랑, 놀랄만한 재능, 남편과 교회와 주님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3일 스미스 자매가 눈을 감았을 때 교회 내외에서 많은 친구와 찬미자들이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 그들의 사랑과 기도를 표하고자 모여 들었습니다. 교회 회원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알므로써 참으로 큰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

# “스커어트의 길이는 과연 어떻게...”

다음의 기사는 쏘트 레이크 시에서 발행되는 교회 신문인 “처치 뉴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꾸밈이 없고 아주 솔직한 내용이지만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숙한 복장을 입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읽고 주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선교부장 엘 에드워드 부라운

스커어트의 길이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유행의 전문가들은 그 길이를 계속 짧게 하려고 하나 끊임없는 저항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길이를 짧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들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행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리에는 더 짧은 모습의 미니 스커어트가 활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마치 도처에서 도덕을 파괴하려는 변혁의 일부인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긴 스커어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미니 스커어트의 창시자들은 과연 누구를 쫓는 자들일까? 만일 그들이 빨리 사람을 쫓지 않고 뉴욕이나 런던 사람을 쫓지 않고 또한 분명히 닮은 거의 유행을 쫓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를 쫓겠는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들은 오늘날 도덕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쫓고 있는 것이다. 마치 외설 문학을 즐기는 사람이 악한 길을 걷게 되고 그러한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 악과 불결한 가운데 타락의 길을 택하듯이 짧은 스커어트를 입는 자들은 도덕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특정한 지역에서 매춘부를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이 미끼로 입는 복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창녀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복장을 하였는가? 거의가 다 엉덩이가 나오는 미니 스커어트를 입지 않았던가! 길거리나 시장 거리에서 현저히 눈에 띄게 증가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차마 스커어트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엉덩이 길이의 스커어트가 아니겠는가!

지각있고 정숙한 여자라면 누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입는 복장을 따르겠는가? 정숙한 여자라면 닮은 대통령 부인이나 그녀의 딸처럼 예의바른 복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장에 관해서 오늘날처럼 의견이 엇갈린 때에 어떠한 길이의 복장을 입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한 가지의 복장을 사용할 수 없고 한 가지의 취향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성 자신의 분별력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면 미덕과 청결을 사랑하는 기독교계의 여성들은 정숙한 복장을 말아야 하겠는가?

여성의 정신력이 점차 남성화하고 있다고 한다. 도의감 때문에 지금의 영화를 보지 않으려던 여성도 여성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부분 이상을 노출하는 짧은 스커어트를 입는데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커피조차 마시지 않던 여성도 남성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자세로 아무런 꺼리낌없이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여성이 그러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나, 그들이 목격한 서글픈 모습에서 어떠한 유익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아주 짧은 스커어트를 입은 한 여인이 그녀의 친구를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애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녀 자신도 똑같이 짧은 스커어트를 입고 있었다.

무엇이 정숙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리에 앉을 때 엉덩이까지 노출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자존심은 어디로 갔을까?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복장이 현재 범람하는 성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 밤 두시에 소녀의 침실을 침입했다가 체포된 불량배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밤 창문 잠그는 것을 잊어 버렸던 것이며 때를 맞추어 불량배가 침입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모진 고통 속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하였으며, 피투성이가 된 채 내버려 졌었다. 과연 이러한 짓을 한 불량배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다른 많은 불량배처럼 그의 범죄 기록에는 가게에서 혹은 세탁소에서 훔쳐낸 여성의 옷에 관해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은 그 범죄자가 공항이나 그의 공공 장소에 앉아 있는 소위 말해서 점잖은 여성이 노출하는 부분에 항상 마음이 끌려 범행을 저지른다고 인용하고 있다.

스테이크 대회 때 한 소녀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총관리 역원이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무릎 위로 8인치가 올라간 짧은 스커어트를 입고 연단에 섰던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말과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옷을 입더라도 아무도 개의치 않지만 정숙한 복장으로 체면에 손상을 입는 일이란 결코 없으며 오히려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부도덕과 유희의 시대에 정숙한 복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겠는가?

